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김 준 철

“ 회원사간 실질 공동이익 창출사업을 통한 전기산업계의 발전 주도 ”

1. 진흥회역할및비전

최근, 국내외의어려운경영환경은전기제조업계에위기감을고조시키고있으며, 아울러비관론도대두되고있습니다.

이에진흥회에서는업계의건전한경쟁과양질의기술개발을통해실질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끊임없이자극하는한편, 2006년병술년에는해외사업및 품질경영등에주력하고자합니다.

첫째, 오는2010년 이후회원사의경쟁력강화및 진흥회이미지제고를위해중장기적인모델개발을끊임없이추구하고자하며, 이의일환으로“ 전기산업인적자원협의회의”구성을통한중소기업의핵심연구인력지원사업, KOEMA 단체규격사업의본격화됨에따른“ 전기기기인증사업연구,”회원사가공동으로참여할수 있는기술개발등과같은협력구축사업과“ 대북전기산업협력교류사업과 같은중장기적비전사업을준비토록하겠습니다.

둘째, 업계요구사항및 경영환경변화에따라대두되고있는현안문제의해결을위해대수요처와의호혜적인상생협력을강화하는한편, 과당경쟁및 단체수의계약의폐지에따른업계간의애로및 건의사항을파악하여실질적인대응책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셋째, 지난2005년 한국국제전시장(KINTEX)으로자리를옮겨성공적인10회째전시회를통해국내최고의전기전문전시회로자리매김한 “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SEF) ”을 진정한 국제전으로서새로이변모시키기위해전시회의명칭변경과더불어국내외참가업체 확대 및 해외바이어의유치등 해외진출사업에총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 해외진출협력센터 ”를 진흥회내에 설치하여한전과유기적인협력을통해 해외진출사업의패러다임을변화와더불어남미시장개척등 새로운블루오션시장창출지원에노력하겠으며, 한 · 중 · 일아시아전기제조업연합회활동을통하여해외경쟁력을강화할수 있는방안도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중전기기대 · 중소기업협력위원회의” 네트워크를활용한업계실익창출에도심도있게연구를하고자합니다.

넷째, 회원사의 질 높은 사업수행 및 단체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조직개편, 인사 및 업무의 혁신, 장기적인 비전제시를 위한 "KOEMA R(개혁) & I(혁신) 계획"을 수립, 집중력 있게 실천하여 궁극적으로는 업계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고, 견실한 업종별 단체로서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전력산업의 향후 과제

과거 60 70년대에는 정부의 수출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을 현실화시키는 데 원동력인 전력산업은 지금 21세기에는 전력시장의 개방, 3E(Environment, Energy, Economy) 연계산업으로의 전환과 IT산업 발달에 따른 전력수요의 급증 등의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방안의 수립을 필요로 하는 시기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 여건을 갖추기 위한 전력산업 기술개발 가속화 및 인력, 설비, 통계 등 인프라 기반 구축과 이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전력IT 계획 추진이 시급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3. 전기계가 화합해서 전력산업을 발전시킬 전략

최근 일부 전력산업 관련 단체에서 이익을 위한 중복사업을 실시 하는 등 과열양상으로 전력산업 및 관련단체 회원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2006년 병술년 새해부터는 전력, 공사, 기술, 제조, 학회 등 관련단체가 서로 힘을 모아 시스템적 공동사업을 실시하여 전력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밑그림을 마련,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4. 전기협회가 해야 할 일과 회원서비스를 위한 개선사항

최근 전력산업 계 종사자들은 관련단체에서 정보제공과 같은 수동적 지원보다는 상호간 이익이 될 수 있는 능동적인 사업지원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기협회는 40년 동안의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원사에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창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6년 병술년 한해도 전력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기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